

“베풀면 모두가 보배다”

각 종단 대표 신년법어...갈등·분열 넘어 상생과 희망의 세계 구현 주문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정해년 붉은 해가 천지를 감싸고 빛을 놓으니 곳곳에서 법외(法雷)가 울리고 무위대화(無爲大化)가 일어난다. 마음을 비우고 베풀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두가 나의 보배가 됨을 알게 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2월 26일 2007년(불기 2551년) 정해년 신년법어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탐욕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비우면 현실세계를 바로 알게 된다”며 “짜우게 되면 모두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고 베풀고 양보하면 모두가 서로에게 인인이 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복한 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집값의 상승으로 국민들의 우울함도 증가했지만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고 희망의 싹을 키워왔다”며 “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증폭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어울려 신명을 펼치는 축제가 되고,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게 설계하는 희망을 키우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밝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자리(自利)에 집착한 나머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혹독한 비판을 서슴치 않으며 내(我)만 있고 우리(我)는 없는 잘못된 풍토가 만연되어가고 있다”며 “생명을 경시하고 다툼이 치성하며 물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세상, 도덕적 가치를 도외시키고 힘이 곧 정의로 평가받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새해에는 온누리에 대자비와 공덕을 베풀고 모든 국민이 맑은바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계발에 힘쓰자”고 신년사를 밝혔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봄이 시샘한다고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유유히 흐르는 저 구름과, 산은 다투지 않는다”며 “맑고 맑은 무심의 그 자리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진각종 도훈 총인도 “자행화화의 정신으로 포교와 교육을 통한 건전한 인재양성과 복지 등의 수많은 정책 업무가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총화가 이루어지고 국민경제가 발전되어 극심한 구직난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처한 민생과 시급



진각종 도훈 총인

하게 해결되도록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은 “정해에 구름이 개고 아침 햇살이 퍼지니 온누리의 어둠이 일시에 밝아지네”라는 계승으로 시작해 “동글고 둥근 동방의 밝은 나라 우담화 피듯 오대주를 두루 비추리라”고 법어를 했다.

총지종 효강 총령도 “정진과 대승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법화종 원웅종 총화종 보문종 원효종 여래종 등 각 종단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들도 신년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은 세상이 열리길 기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신년법어 buddhanews.com에

현대불교신문 계속 발행됩니다

새 법인 구성해 계속 발행키로...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

한마음선원의 언론포교에 대한 의지와 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한마음으로 모아져 '현대불교'의 폐간결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는 12월 23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신설회사를 조기에 설립하여 신문을 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의결은 향후 선원의 지원방안, 직원들의 자구노력, 그리고 향후 현대불교 신문의 진로와 운영에 대한 원칙 등에 대한 합의를 담은 양해각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불교'는 내부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신문의 내용을 더욱 새롭게 정립해 새해부터 알찬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불교계 '대표언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창간된 이래 12년간 불교계의 대표적인 언론으로서 신형 풍토 진작과 언론포교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대불교신문이 있기에는 한마음선원의 포교 원력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선원과 현대불교신문사 직원들은 뜻을 합쳐 불교계 언론을 선도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폐간결정이 있을 후 직원들이 '신문을 계속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대주주와 이사진 여러분께 적지않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넓은 마음으로 '현대불교'의 변함없는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현대불교'의 폐간에 대해 우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불교계 각 종단과 단체, 스님들 및 불자 여러분께 두 손 모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일동

도반의 향기 7면
경찰병원복지회 윤애경 부회장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0~11면
세모에 되새기는 가르침

2006 불교계 10대 뉴스 4면

겨울철 건강관리 이렇게 13면

월호스님의 '땀' 이따자 19면

대북사업·대사회사업 '활기' 예고

종단협 새해사업·예산 6억1천만원 확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스님, 이하 종단협)는 12월 26일 한국불교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 6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예산안과 신년 주요사업 계획을 결의하고 신임 임원도 선출했다.

2007년 새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줄어든 6억1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주요사업과 행사로는 △신년하례법회 △제3회

3·1절 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제8회 8·15기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단협은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을 비롯해 제1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와 제1차 일본대표단 초청 한국불교문화체험 등의 국제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부회장

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자승스님을, 상임이사에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 이사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종단협 사무국장에는 항명스님(쌍계사 주지)이 임명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등 이사 33명 가운데 24명(위원 3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내부 사정으로 이번주 제작이 지연되었으며 20면으로 발행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진년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n.com

충격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매국적 음모의 실체 **호국, 불교TV에서 그 진실을 밝힌다!!**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가 최대관심인 이유는 반도체산업을 능가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언스지와 미 보건성에 의하면 연간 줄기세포 시장은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 가치의 **황금산업**이다. 21세기 경제전쟁의 중심에 황우석박사의 **특허기술**이 있다.

황우석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수립은 전세계에서 독보적인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그 우수원 원천기술이 학문적 영역, 의료계의 이권다툼, 미국노집단의 분탕질로 인해 향후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계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황우석박사가 사기꾼인양 매장되는 여론이 형성될 무렵 KBS 문형렬PD가 황우석박사 파동의 본질을 파헤친 "새튼은 특허를 노렸다"라는 특집방송(추적60분)을 제작했으나 외압에 의해 결국 방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호국, 불교방송에서 이 사건을 심도있게 다뤄 제작하여 3일만에 걸쳐 전국적으로 줄기세포의 진실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특허 사냥꾼 새튼이 훔쳐간 줄기세포의 진실의 내막과 줄기세포가 존재했다는 엄청난 사회고발성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불교TV특별기획 방송일정
"새튼은 음모와 NT-1의 진실"
불교 TV www.btn.co.kr

- ▶ 1부 - 12월 28일 : 오전 7시 45분, 오후 7시30분
- ▶ 2부 - 12월 29일 : 밤 11시 30분
- ▶ 3부 - 12월 30일 : 낮 12시 50분

연론, 시민단체
· 국민의 소리(www.peoplevoice.co.kr)
· 민초리(www.minchori.com)

황우석박사 지지단체
· 아이러브 황우석(http://cafe.daum.net/ilovehws)
· 여계인 황우석(http://cafe.daum.net/againhws)
· 황우석 광정(http://cafe.daum.net/46st)
· 황우석교수 שלי기 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livehwang)

황우석 지지 지역단체
· 경기남부연합(http://cafe.daum.net/soohe)
· 황우석 지지 대전 충남협의회(http://cafe.daum.net/hws042)
· 황국면(http://cafe.daum.net/prideofkorea)

황우석과 함께하는 부산시민연대(http://cafe.daum.net/busanhws)
· 황우석 지지 광주모임(http://cafe.daum.net/kwangjumeet)
· 황우석 지지 전주전북 모임(http://cafe.daum.net/jeonjuhws)
· 태왕사신기

그래도 희망은 황우석입니다.